

[2012년 6월 9일 시행 서울시 7급 한국사 기출문제] - 원유철

고대(5)			고려 (6)	조선(5)		근현대(3)		
선사	초기국가	고대국가		전기	후기	개항기	일제	현대
1	1	3	6	2	3	1	1	1
※ 통사(1) : 토지 소유&경영 방식(1)								

※ 출제유형

선사시대(1)	· 후기 구석기 유적	
초기국가(1)	· 삼한 : 제천행사 5월, 10월 두 차례 실시	
고대국가 (3)	정치사/시대사	경제사/사회사/문화사
	· 고구려 : 시대순서 문제	· 골품제도 : 6두품의 특징(한계) · 고분문화 : 전축분(무령왕릉) 묻기 출제

	고려(6)	조선전기(2)	조선후기(3)
정치	- 왕대사 : 태조 왕대사 - 왕대사 : 성종 왕대사 - 중앙제도 : 고려 독자적 기구 →식목도감으로 출제 - 시대순서 문제 : 인종~무신집권기 사건 순서	- 조선 건국사 : 최영·이성계가문, 과전법, 경복궁 등 출제 - 사람정치사 : 사람들의 활동	- 왕대사 : 정조 - 봉당정치사 : 탕평정치 - 대외관계 : 통신사
경제	고려시대 경제 특징 : 조선시대 경제 특징과 구분문제		
사회			
문화	불교사 : 지눌		

개항기(1)	· 개항전후 개화운동/척사운동 전개 : 척사운동 시기구분문제로 출제
일제(1)	· 사학사 : 박은식, 《한국통사》 출제
현대(1)	· 해방공간 :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발표 직후 한반도 상황

※ 총평

서울시 문제는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1번, 10번, 13번, 16번이 정답 특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의 정답 처리 여부에 따라 한국사 합격점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3번, 6번, 7번, 8번, 11번, 14번, 15번, 17번, 20번은 틀리면 곤란한 문제들이다. 이 부분이 틀렸다면 공부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3번, 6번, 8번, 11번, 12번, 13번, 15번, 17번 등은 기출 문제에서 자주 보여지는 유형이다.

1. 고려말, 조선초의 인물 및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¹⁾ 것은?

- ① 최영은 우왕의 장인으로써 그의 부계집안(철원 최씨)은 원간섭기 이래 새로이 성장한 신흥 가문이다.
- ② 이성계는 동북면 출신이지만 선대부터 전라도 전주에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가졌다.
- ③ 고려말 과전법 실시를 통해 기존의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를 몰수당했으나 수조지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받았다.
- ④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으로써 현재 서울의 5대 궁궐 중 가장 먼저 세워졌다.
- ⑤ 조선 태종은 의정부 서사제의 실시를 통해 국왕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공고히 했다.

정답. ④. **[여말선초의 특징]** 한번만 더 검토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면 좋았을 것 같다. ② 이성계 집안은 기록상 선대에 전주에 유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연유(여러가지 전설이 있다)로 인해 4조인 이안사가 전주를 떠나 함경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온다(이 자체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로 보면 이성계가 함경도 출신인 것은 맞다. 다만 뒷부분은 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다. 현재 그렇다는 것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그랬었다는 것을 묻고 있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된다. ④ 이성계가 한양천도를 결정하고 만든 최초의 궁궐은 법궁인 경복궁이 맞다. 다만, 이 문제가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묻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 ① 최영의 철원 최씨는 문벌귀족 출신으로 고려전기 이래 대표적인 귀족가문이다. ③ 과전법 시행 당시 주 혁파의 대상은 수조지 집적형 농장이었다. 한 토지에 전주가 수 명이 되는 현상을 주 혁파 대상으로 하였다. ⑤ 태종은 6조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중심의 국정운영을 해나가하고자 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311,350 참조](#)) ([《많이푸는 문제집》 예상 p103 참조](#))

2. 다음 한국역사 속에 등장한 토지소유와 경영 그리고 토지개혁론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 순서로 바른 것은?

- ㄱ. 노비가 지주의 작개지와 사경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이 등장했다.
- ㄴ. 국가는 지계 또는 관계의 발급을 통해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
- ㄷ. 나라 안의 대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놀고먹는데 그 수가 1만 여명이나 된다.
- ㄹ.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고 그 규모이하로는 매매를 제한하는 토지개혁론이 등장하였다.
- ㅁ. 일반평민은 연수유전답을 소유하고 경작하였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ㄷ-ㄱ-ㅁ-ㄴ-ㄹ

③ ㅁ-ㄷ-ㄱ-ㄹ-ㄴ

1) '틀린'이라고 적어왔는데, '맞는'이 원래 표현인 것 같다.

④ ㄷ-ㄹ-ㄱ-ㄴ-ㄷ

⑤ ㄱ-ㄹ-ㄷ-ㄴ-ㄷ

정답. ④ **[통사]** ㄷ. 좌식계급(고구려) → ㄹ. 신라장적(통일신라추정) → ㄱ. 농장하의 토지 경영형태를 말함(16c 양반들에 의한 지주제 경영이 나타나기 이전에 행해졌던 농장경영 형태의 일반적인 양상: 병작반수와 달리 노비가 작개지 경작에 대한 대가로 사경지 경작 몫을 챙긴다.) → ㄴ. 이익의 한전론(조선후기 실학자의 개혁안) → ㄷ. 광무양전·지계사업(대한제국) ([《원유철의 역사일지》 pp44,156,522,671](#))

3. 밑줄 친 제도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지난번에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었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한검5회 고급 p185](#))

<중종실록>

- ① 사화를 일으켜 사림세력을 공격
- ② 세도가문이 되어 정치권력 독점
- ③ 연관직에 진출하여 훈구세력의 잘못 비판
- ④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화하여 권문세족을 견제하려함.
- ⑤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정비에 크게 기여함

정답. ③ **[조선전기-사림정치사]** 사림세력에 대한 설명이다. 사료는 중종대 등용된 조광조 등 기묘사림의 주장이다. 조광조는 여기서 ‘천거로 인재를 뽑는 제도’로 현량과(賢良科)를 주장하였다. 이는 조광조 일파가 정계로 사람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다(조광조가 실각하면서 곧 폐지되었다.). // ① 훈구파 ② 세도가문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시기는 19c 세도정치를 일컫는다.²⁾ ④ 고려말 신진사대부 ⑤ 훈구파 ([《원유철의 역사일지》 p368](#))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한검5회/4회 고급 p185](#))

4. 다음 정치상황이 나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³⁾

근래에는 ([해설자 역: 탕평책 때문에](#)) 사색(四色)이 함께 조정에 나아갔지만, 오직 벼슬

2) ※ 이 외에도 세도가에 의한 세도정치가 때때로 나타나기도 했었으나(世道 혹은 勢道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출초기 이들 세도가에 의한 정치를 비판하였다(명종대 이후 훈척정치 비판).

3) 사료는 전부가 반출이 되지않아 자주 쓰는 해석을 모두 덧붙였다.

만 할 뿐이지 예로부터 지켜오던 의리는 모두 고깔을 씌우듯 숨겨 버렸다(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다). 사문(斯文 : 유학)을 위한 시비(是非)와 국가에 대한 충역(忠逆)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린다(학문의 옳고 그름이나 나라의 충신·역적에 대한 논란도 모두 지나간 일로 돌려버린다). 그러다 보니 왕성한 기운으로 피나게 싸우던 버릇은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예전의 습속에다 약하고 게으르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새 병폐가 보태졌다. 그 마음이 실제로는 서로 다르면서, 겉으로 입에 올릴 때에는 모두 두리 문실한 색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41)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p291)

<택리지>

- ① 비변사강화 ② 탕평책실시 ③ 사림의 정계진출
④ 세도정치의 전개 ⑤ 대원군집권

정답. ② [조선후기 정치사-붕당정치사] 이증환이 쓴 《택리지》의 일부 기사이다. 이증환은 붕당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이후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온 탕평정책이 또 나름의 폐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수능/평가원 기출 그대로 출제) (《원유철의 역사일지》 p440)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예상 p291)

5. 다음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묘시에 시도를 떠나~~~~~경예?에 이르렀다.

홍우재, 《동사록》

- ① 일본 막부의 장군이 바뀔 때 축하사절로 파견되었다.
② 국왕의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갔다.
③ 한 번에 대략 4~5백 명이 파견되었다.
④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는 배로, 다음 에도까지는 육로로 갔다.
⑤ 19세기말까지 12차례 파견되었다.

정답. ⑤ [조선후기 대외관계-통신사] 통신사에 관한 설명이다. 통신사는 19c 초반 순조대(1811) 파견을 끝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조일관계는 일본이 왕정복고(메이지유신) 사실을 알리는 '서계'를 보내면서 다시 전개되었다(이 때 조선이 서계접수를 거부한 탓에 일본 정계 내에서 '정한론'이 일기도 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66)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한검9-3 급/08국9,08지9/예상 p329-331)

◇ 통신사는 임란 이후(임란 전에도 명칭이 사용되긴 했으나, 통상 조선후기의 것을 칭한다), 조선은 일본의 재 침략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일본은 새로이 수립되는 막부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상호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한일 교류 사절단이다. 이를 통해 조선의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일본 막부가 있는 에도까지 갔으나, 순조대(1811년) 마지막이 된 12차 통신사는 '역지교빙'이라 하여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대마도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상호간에 교류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진 탓이었다. 결국 이 교섭을 끝으로 전근대의 공식적인 한일관계는 끝이 났다. 이후 두 나라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은 대원군 집정기 이른바 ‘서계문제’를 통하여서였으나, 이마저도 대원군이 서계 접수를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강화도조약으로 둘 간의 근대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게 되었다.

- ◇ 《동사록》은 역관 홍우재가 숙종 8년(1682.5~11) 일본 통신사행을 수행하면서 일본 왕래까지의 여정(旅程)과 사행임무 수행과정 및 견문(見聞)한 바를 기록해 놓은 통신사 일기(日記)다.(※ 이 전에 쓰여진 것으로 선조대 문신 강홍중 《동사록》, 인조대 문신 황호 《동사록》, 19c 순조대 문신 유상필/김이교 《동사록》 등도 있다.)

6. 밑줄 친 왕에 의해 추진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은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하여 영조대에 실력을 키워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 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43-4](#))

- ① 친위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②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 ④ 관리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⑤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갖춘 화성을 건설하였다.

정답. ③ [조선후기 왕대사-정조] 정조대의 역사적 사실을 묻고 있다. 제시문은 **영조대 완론 탕평에 의해서 만들어진 척신정치의 폐해를 경험한 정조가 준론탕평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 ③ 《속대전》은 영조대 편찬되었다. 정조대는 《속대전》과 《경국대전》을 통합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43](#))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한검6 회고급/09지7/평가원 p296,298,302](#))

※ <참고> 영조대의 완론탕평과 정조의 준론탕평

영조대의 완론 탕평의 한계로 척신세력이 성장했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영조는 자신을 도와 줄 세력을 얻기 위해 결국은 혼인관계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만든다(영조는 온건파인 ‘탕평당’을 만들어 봉당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본의 아니게 척신을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정조는 온건한 탕평(완론탕평)을 시행하지 않고 준론탕평을 시행한 것이다. 영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봉당의 극단에 있는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단순히 온건한 세력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봉당의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가 분명한 인사들을 등용해 봉당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적극적인 탕평정치를 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정조대 만들어진 외척도 결국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국왕이 급작스레 사망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영정조 대의 이러한 현상들이 역설적으로 세도정치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7. 19세기 후반이후 개화정책에 대한 국내인사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이전 통상개화주장은 18세기 북학파의 대외통상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② 개항이전 통상개화를 주장하던 인사들 중에는 유대치와 오경석 등 중인출신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 ③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경상도 유생 이만손 등은 영남만인소를 올려 서양세력에 대한 통상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 ④ 위정척사파의 인물들은 상당수가 의병활동에 참여하며 일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 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삼아 조선을 근대국가로 변모시키려는 변법개화파중 상당수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자 적극적인 친일 매국의 노선을 취하였다.

정답. ③ **[개항기 정치사-척사운동]** 척사운동은 크게 3차례 있었다. 이만손 등의 영남만인소는 정부개화정책 시기 정부의 《조선책략》 유포를 기화로 일어났던 신사척사운동(1881년)이다. 병인양요는 대원군 집정기에 있었던 조불간의 전쟁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75,590](#)) ([《많이푸는 문제집-근현대》 예상 p55](#))

※ 개항기 3차례 척사운동([《역사일지》 592표](#))

1차 척사운동 (대원군 집정기)	2차 척사운동 (강화도 조약 시기)	3차 척사운동(신사척사) (1881년; 정부개화정책 시기)
· ‘통상반대론’ : 서양세력의 통상 개화요구 반대운동 · 이항로, 기정진 등 대표적	· ‘왜양일치론’, ‘개항반대’ : 일본의 개항요구에 반대 · 최익현 등 대표적	· 《조선책략》 유포가 배경, 정부 [고종]의 개화정책 반대 · 영남만인소를 소두로 전국적인 척사운동 나타남
· 대원군 : 동일 입장 취함	· 고종 : 왜양분리, 구호중수론 통해 일본의 수교요구 수용	· 비교적 강경하게 대응 : 홍재학 처형, 유배 등

8. 다음 주장을 펼친 사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혼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 만이라도 오로지 남을 수 없는 것인가? ([《원유철의 역사일지》 p720](#)) ([《많이푸는 문제집-근현대》 한검8회고급 p220](#))

- ① 조선혁명선언 발표하고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 ② 민족주의사학의 입장에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③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여 고대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④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여 한국학의 뿌리를 내렸다.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자 한독당을 창당하였다.

정답. ② **[근현대 사학사-박은식]** 박은식의 《한국통사》 내용이다. 박은식은 여기서 ‘혼백론’을 통해 형체(백魄)는 사라졌어도 정신(혼魄)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민족주의 사학의 틀을 연 인물로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 ① 《조선혁명선언》 발표(신채호), 의열단 조직(김원봉) ③ 신채호(※ 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안재홍의 《조선상고사감》이다.) ④ 박은식은 1925년에 돌아가셨다⁴⁾. 조선학운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 주축으로 이뤄졌는데,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대표적이다. ⑤ 김구 ([《원유철의 역사일지》](#))

4) 박은식은 인물사로 자주 나오는 분이라 돌아가신 연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다. 1925년 이후 사실에 끼워 넣으면 틀리는 것으로 기억하라 자주 강조했는데, 그대로 나왔다. 신채호도 더불어 알아두는 것이 좋다(30년대까지 생존해 계시나, 옥중에 계심. 신문연재만 가능했음).

지》 p719) ([《많이푸는 문제집》](#) 한검8회고급,3회1급/예상/09지9 p220-1,213,218)

9. 다음 결정 발표직후 정치상황으로 옳은 것은?

- 한국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기 위해 한국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 한국 임시정부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원유철의 역사일지》](#) p852) ([《많이푸는 문제집-근현대》](#) 한검3회2급 p362)

- ①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 ② 임시정부요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 ③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이 추진되었다.
- ④ 좌·우익이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격렬히 대립하였다.
- 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정답. ④ **[현대-해방공간]** 제시된 사료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문>(1945.12) 내용 중 일부이다. 대체로 1946년의 한반도 상황을 묻고 있다.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문>이 한반도에 알려지고 난 직후에 나타난 반응은 이른바 ‘신탁통치 쇼크’였다. 한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격화되어 이후 한국민의 모든 정치적 논의는 사장되고 찬반탁 논의로 집중되었다. 현재 한국 좌우의 기원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통성 문제나 민족적 가치문제 등은 모두 좌우의 논의 뒤로 숨게 되었다. // ① 1948.12(소련철군)/1949.6(미군철군) ② 1945.11.23./12.2 ③ 1948년 남북협상운동(김구와 김규식 등 중간파에 의해 주도; 평양을 방북해 김일성과 회동) ⑤ 1948.8.15. 해방직후 ([《원유철의 역사일지》](#) p852) ([《많이푸는 문제집-근현대》](#) 한검3회2급,4회 고급/07국9 p362,372,376)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유적지는?

약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을 말하는데 이때는 같은 석기라도 밀도가 높은 단단한 돌을 이용했으며 돌에다 켜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격자를 만들 줄도 알았다.

- ① 단양 상시리, 공주 석장리
- ② 덕천 승리산, 하남 미사리
- ③ 평양 만달리
- ④ 웅기 부포리, 부산 동삼동
- ⑤ 청원 두루봉, 제주 고산리

정답. ①③(손보기, 『한국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 P244.) **[선사-구석기]** 후기 구석기를 설명한다. BP 1만년전(BC 8000년)부터 신석기가 시작된다. 시기구분은 논자마다 정답을 잘 내지 못하는 것이다. 후기구석기의 시기구분만큼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나, 이 역시 유적지를 통해 평가할 때는 어려운 면이 많다. // 제주 한경 고산리, 미사리, 부산 동삼동 등은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

1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 족장들 중 세력이 큰 자는 스스로 신지라 부르고 그 다음 세력을 읍차라 한다. …… 정치적 지배자 외에 별도로 제사장인 천군이 있다. 한편 신성지역으로 소도(蘇塗)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관한 의례를 주관한다.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 도망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3) (《많이푸는 문제집-고대사》 p40)

- ① 부족장들이 사출도라 불리는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 ② 군장들이 각각 읍락을 다스렸고 민며느리 혼인풍습이 있었다.
- ③ 5월과 10에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④ 각 읍락끼리 서로 침범하지 않았으며 이를 어기면 소. 말 등으로 갚아야 했다.
- ⑤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정답. ③ [초기국가-삼한] 삼한에 관한 사료이다. // ① 부여 ② 옥저 ④ 동예 ⑤ 고구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4) (《많이푸는 문제집-고대사》 한검9회고급 참조 p30)

12. 다음은 고구려시기의 주요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영락 연호사용	나. 낙랑군 점령
다. 진대법 시행	라. 온달의 전사

- ① 나-가-다-라
- ② 나-다-가-라
- ③ 다-가-라-나
- ④ 다-나-가-라
- ⑤ 다-라-나-가

정답. ④ [고대사-고구려 시대사] 다. 진대법 시행(2c 고국천왕) → 나. 낙랑군 점령(4c 미천왕) → 가. 영락 연호(4c말~5c초 광개토대왕) → 라. 온달 전사(6c말 영양왕; 6c 신라에게 빼앗긴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전사(단양 온달산성 vs 서울 아차산성)) (《원유철의 역사일지》 p61,64,72,79) (《많이푸는 문제집-고대사》 11서7 p41,53 참조)

13. 삼국시대 고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장군총은 돌무지무덤에 속하는 고구려의 대표적 고분이다.
- ② 서울 석촌동 백제 고분은 양식상 고구려고분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 ③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 중 사신도의 유형은 대체로 고구려 후기에 축조된 고분에서 발

견되었다.

- ④ 일본 나라현 소재의 다카마쓰 고분에서는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와 비슷한 벽화가 발견되었다.
- ⑤ 1971년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깊게 받은 석실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답. ⑤ **[고대 문화사-고분문화]** 무령왕릉은 대표적인 전축분(벽돌무덤)이다. 삼국시대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대표적 고분으로 벽돌무덤이 두 기가 있는데, 모두 백제 공주 송산리에 있다. 그 중 하나가 무령왕릉이다. 송산리고분군에는 총 7기의 무덤(송산리 1호분~7호분)이 있는데, 그 중 6호분, 7호분이 벽돌무덤이다. 가장 늦게 발견된 7호분은 안에서 지석이 출토되어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무덤은 7호분이라 하지 않고 피장자 이름대로 ‘무령왕릉’이라 칭한다. // ①② 돌무지무덤(적석총)은 청동기부터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무덤 양식이다. 돌무지무덤이 발달하면서 점차 기단이 나타났는데, 이 기단 양식이 완성되어 계단식 양식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계단식(기단식) 돌무지무덤이다. 이 무덤은 중국 집안지역(압록강 유역), 국내 한성지역(서울)에서 나타났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출자가 동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삼국사기》 초기기록(백제 건국기사: 고구려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건국)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③ 벽화는 초기 생활풍속도에서 종교적 지향을 표현하는 등 점차 추상적인 형식으로 나아갔다. 불교 양식(연꽃, 연화화생문 등; 북위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교의 전형적인 양식들(신선, 사신도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중 도교의 사신도가 가장 늦게까지 유행하였다. 이 덕분에 평양 주변에 그려진 사신도(강서대묘)가 가장 완성도 있다. ④ 다카마쓰 고분(7c말~8c초)은 무령왕릉 발굴(1971) 직후 발굴된 동아시아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1970년 발견, 1972년 발굴) 중 하나였다(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사로 새로 쓸 만한 커다란 발견을 한 것이다. 둘 다 아주 우연히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나 나타나는 화려한 채색의 벽화가 발견되어 일본인들의 기원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벽화에는 인물상(여인들, 남성들), 별자리, 사신도 등이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수산리 고분, 쌍영총(벽화의 원료가 같다), 무용총 등 많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고구려인들에 의한 작품이거나 그림의 대상이 고구려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도 미국인 혹은 일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고구려 계통이거나 고구려 사람일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191](#)) ([《많이푸는 문제집-고대사》 법원집 p114](#))

※ 고대의 무덤 양식

돌무지무덤 (적석총)	계단식 돌무지무덤 (고구려/백제 양식)	- 적석총에 기단이 나타나면서 형성됨 - 집안지역에 발견 → 한성(서울) 지역에 발견 : 고구려와 백제의 계통이 같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문화재(《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입증)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 양식)	- 평지에 널과 부장품 상자를 넣고 그 바깥으로 목곽을 쌓았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냇가의 돌 등을 수북이 쌓고 마지막으로 봉토를 쌓아 올린 형태의 무덤을 말한다. - 신라 마립간 시기(4/5~6c) 집중적으로 축조 : 대개 금관, 유리제품이 출토됨 → 신라의 왕권을 살필 수 있는 유력한 문화재들 - 신라에서만 나타난 특이한 형태의 무덤 → 신라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유력한 문화재
돌널/돌곽		

무덤/목곽	
돌방무덤 (석실분)	- 굴식 돌방무덤이 대표적 :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출입구; 연도)가 있고, 그 안에 1개 이상의 무덤방(전실, 후실)이 있는 형태 - 삼국 모두 만들어짐. 가야에서도 나타남
※ 널무덤	철기 이래 유입된 중국식 묘제(다른 평가 있음). 움무덤/토광묘라고도 한다. → 선사시대/초기국가 이래 중국과의 교류(중국문화 영향)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 형태
벽돌무덤 (전축분)	ㄱ 삼국시대 : 백제 송산리에서 2기 발견됨 ㄴ 남북국 시대 : 정효공주묘 → 고대국가 시기 중국과의 교류(중국문화 영향)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분
※ 일본	- 다카마쓰 고분 : 남녀 인물도, 사신도, 천문도 발견 - 기토라 고분 : 천문도(북위 38~39 사이에서 관측한 성좌: 평양을 기준으로 하는 천문도), 사신도, 십이지신 등 발견 → 한반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무덤(한일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본 문화재) ※ 한일교류를 보여주는 기타 고분 : 전방후원분

14. 다음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관등승진의 상한선은 6등인 아찬까지였다.
- 득난이라고도 불렸다.

- ① 설총, 강수, 최치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② 신라 중대는 전제왕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 ③ 집사부 시중직을 역임하면서 귀족세력을 견제하였다.
- ④ 중위제를 설치하여 이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 ⑤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반신라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정답. ③ **[고대 사회사-골품제도]**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6두품의 관등은 6관등까지, 관직은 차관급인 시랑 혹은 경까지만 승진 가능했다. 집사부 시중은 진골귀족만이 가능했다. // ① 유학자는 대부분 6두품이다. ② 중대에는 학문·종교 등 국왕의 근시직으로 중앙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전제왕권을 뒷받침하였다. ④ 중위제는 대족장·소족장 출신이지만 신분한계상 승진의 한계가 정해진 6두품, 5두품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실시한 일종의 ‘승급제(호봉제)’와 같은 것이었다. ⑤ 신라 하대에는 골품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반신라세력화 하였다. 이들은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등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호족)들의 책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111](#)) ([《많이푸는 문제집-고대사》 법원직/예상 p75,76](#))

15. 다음 제도를 마련한 왕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왕 김부가 항복하였다. 이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로 삼고 김부로 하여금 본주의 사심이 되어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에게도 이를 본받아 각각 출신고을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205](#)) ([《많이푸는 문제](#)

집-중세》 예상 p4)

- | | |
|-------------|------------------|
| ① 노비안검법 마련 | ② 백관의 공복제정 |
| ③ 전민변정도감 설치 | ④ 주현에서 바칠 공물량 정함 |
| ⑤ 흑창 설치 | |

정답. ⑤ **[고려 정치사-왕대사]** 고려 국초, 태조대 실시한 사심관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① 광종 ② 광종(자-단-비-록 4색공복 제정) ③ 공민왕(신돈이 신진사대부 등용해 추진) ④ 광종(주현공부법) ([《원유철의 역사일지》 p206](#)) ([《많이푸는 문제집-중세》 한검 12회중급/예상 /11서9 p4,7](#))

16. 고려 성종의 업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 ② 개성에 최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 ③ 각 주에 향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④ 중앙관제와 향직을 개정하여 문·무산계를 부여하였다.
- ⑤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수령을 파견하였다.

정답. ⑤ **[고려 정치사-왕대사]** 말이 너무 모호하다. 두 가지 이상의 말이 이어져서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게 서술되었다. ④ 중앙관제와 향직을 마련한 후 문무산계를 부여했다는 것이라면 문제없다(중앙의 양반관료는 문산계를 받고 향리도 무산계를 지급받았다). 다만 향직에도 문무산계가 부여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문제가 있다. ⑤ 외관이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태조대의 일이다.⁵⁾ 조장, 금유, 전운사 같은 이들이 왕의 명을 따라 지방 관리역할을 수행하였다(다만, 상주하는 지방관은 아니고, 조세수취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본다). 심지어 양계지역에는 광범위한 정도의 외관이 파견되어 있었다. 다만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민사업무 목적의 행정관과는 차이가 있다. 어찌됐든 성종대 지방관이 처음 파견된 것은 아니다. 성종대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지방관이 아니라, ‘상주 지방관’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주하는 민사지방관’이 처음으로 파견된 것이다. // ① 서경제도와 서경의 분사제도는 태조대 처음 실시되었고, 성종대는 더 강화되어 서경에 도서관이 분사되었다. 개경에 비서성이 있었고, 서경에는 수서원을 설치하였다. ③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인종대 향교[향학]이 처음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었으나, 지금은 성종대 향교가 처음 설립되었다는 것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성종 6년, 11년 기사가 가장 주요하게 인용되는 사료). 더불어 향교라는 명칭이 고려시대에서도 보통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최근에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래서 말해지는 향학, 주학(州學), 현학(縣學)이라는 것들도 기실 향교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실제 향교를 표현하는 말에 향학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이 많다. 이를 출제자가 특별히 구별해 쓰거나 향교가 그것과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해 문제를 냈으리라고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p213,](#))

5) 태조대 지방행정 개편과 관련한 주요한 기사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 기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편이며, 국초 이미 어느 정도의 지방지배 개편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이푸는 문제집-중세》한검 4회3급,2회1급,11회고급/10서7 p8,11,40 참조)

17. 밑줄 친 성격에 해당하는 정치기구로 옳은 것은?

고려의 통치체제는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또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도 있었다.

- ① 식목도감 ② 중추원 ③ 삼사 ④ 상서성 ⑤ 중서문하성

정답. ① **[고려 정치사-중앙제도]**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를 묻고 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대표적이다. // ②③ 중추원·삼사, 송나라 제도 수입 ④⑤ 3성6부, 당나라 제도 수입 (《원유철의 역사일지》p228) (《많이푸는 문제집-중세》한검 4회고급 p26)

18. 다음 사건들의 발생 시기를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서경 대화궁 건설 나. 삼국사기 편찬
다. 조위총 반란 라. 경대승 집권
마. 교정도감 설치

- ① 가-나-다-라-마
② 가-라-나-마-다
③ 나-가-다-마-라
④ 나-라-다-마-가
⑤ 나-마-가-라-다

정답. ① **[고려-시대사]** 가. 서경 대화궁 건립(인종,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 나. 《삼국사기》 편찬(인종, 묘청 난 진압 후 김부식에 의해 편찬) → 다. 조위총 반란(1174; 정중부 집권기) → 라. 경대승 집권(1179) → 마. 교정도감 설치(최충헌) (《원유철의 역사일지》pp223-4,286) (《많이푸는 문제집-중세》한검4회3급/11서9 p2,23,80 참조)

19.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시전을 만들고 국영 점포를 열었다.
② 하급관료와 군인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③ 먹, 종이, 금, 은 등 수공업 제품을 소에서 생산하였다.
④ 공물에는 매년 내야 하는 상공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⑤ 5일마다 장시가 열려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물품을 교환하였다.

정답. ⑤ **[고려시대 경제사-경제사]** 5일장이 열리고 장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일이다. 장시는 고려시대 주현(지방)의 관아 부근에서 나타났던 것이(이때는 잉여생활품 교환정도) 조선왕조 개창과 동시에 잠시 소멸되었다가, 1470년경 전라도 무안지역에서 장문(場門)이란 이름으로 다시 출현하였다. 15c말 전라도 지방에 확산되고, 16c에는 삼남지방으로 확산되었다가, 18c에 이르러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국적인 연계망이 형성되었다. 이전에 15일장(월3회), 5일장(월6회) 병행되던 것도 18c 이르면 5일장으로 일반화된다. // ① 시전 외에 고려는 주점(酒店), 다점(茶店), 식미점(食味店) 등 국영상점(시전 외 관영상점)과 관련한 언급이 등장한다. ② 구분전은 토지를 분급받은 관료와 군인들이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제도이다. ③ 고려시대에는 소(所) 수공업이 발달하여 이 곳에서 수공업품, 광물, (때로는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고려후기에는 소(所) 수공업이 쇠퇴한다). ④ 공물은 3세(조용조)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당연히 고려시대에도 존재했고 거기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이 있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16](#)) ([《많이 푸는 문제집-중세》 07국9,07세9,11지9 p54,60,62](#))

20. 다음 (가)를 제창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신집권 이후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는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났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운동인 (가)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가)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히 전개하였다.

- ①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내세웠다.
- ② 교단의 통합과 정리를 불교계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우선과제로 보았다.
- ③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주장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④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⑤ 아미타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정답. ③ **[고려 문화사-지눌]** 지눌이 결사운동(불교정화운동)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권수정혜결사문>이다. 지눌은 '제2의 출가'를 주장하며 타락된 불교계를 떠나 수행과 노동을 함께 실천하자는 결사운동을 제창하였다. 지눌은 전라도 송광사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 지식인[단월]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지방 지식인들을 각성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 ① 의천 ② 의천과 지눌 모두 선교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의천이 비교적 왕권강화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통합을 시도하였다. ④ 혜심(지눌의 제자; 유학자이자 과거(사마시) 출신) ⑤ 의상 ([《원유철의 역사일지》 p324](#)) ([《많이 푸는 문제집-중세》 09국9,07법원직 p121,132 참조](#))

아래는 샘 강의일정 하나만 덧붙일게요^^ 여름 방학 대비해서 실시하시는 특별강의입니다. 대박 강의의 맛이라도 한 번 보시라고 올려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합격의 법학

원 홈페이지(<http://public.lawschool.co.kr/>)에 나와 있을 겁니다. 강의 문의도 그 곳에 하시면 되고요^^ 원샘 카페 있으니 필요하신 것 있으면 여쭙보세요.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번 서울시 9급 기출문제입니다. 7급 수험생분들도 한 번 풀어보라고 문제와 해설을 분리해서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9일 서울시 9급 기출문제 한국사 (원유철)

고대(5)			고려 (6)	조선(5)		근현대(4)		
선사	초기국가	고대국가		전기	후기	개항기	일제	현대
1	2	2	6	4	1	2	1	1

※ 출제유형

선사시대(1)	· 선사시대 이론문제 : 구석기 보편적 발달사 묻는 문제로 출제	
초기국가(2)	· 고조선 : 고조선의 발달사(최근 중심 논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 · 초기국가 : 옥저와 동예를 압박한 국가 물음	
고대국가 (2)	정치사/시대사	
	경제사/문화사	
	· 고구려 왕대사 : 광개토대왕 vs 장수왕 · 신라 하대사 : 승탑, 탑비 유행으로 출제	

	고려(6)	조선전기(4)	조선후기(1)
정치	· 호족통제책(왕권강화책) : 시대사 문제로 출제 · 최승로의 개혁정책 : <5조정적평>과 <시무28조> 내용 · 무신집권기 시대사 : 최충헌 <봉사10조>와 <동명왕편>으로 출제	· 왕대사 : 의정부서사제의 특징 묻는 문제(왕권과의 관계)	· 영정조 왕대사 : 성종대 《동국여지승람》으로 출제
경제	· 토지제도 : 과전과 과전 외의 토지지목 내용 묻는 문제 · 대외관계 : 주변국들과의 교류 관계(일반론으로 출제)	· 조선전기 경제정책 : 농본억말 정책(억상정책) 이해도 묻는 문제	
사회			
문화	· 인쇄술 : 《직지심체요절》 간행한 사찰 출제	· 사상사 : 조선의 성리학 발달에 대해서 물음(이황vs이이의 성리학 포함) · 《동국통감》 : 왕대 혹은 내용/편찬 과정으로 출제	

개항기 (2)	· 대원군의 정책 : '서원 철폐'를 향교 철폐로 출제 · 대한제국 : 최근 잘 출제되는 <대한국 국제> 출제형식대로 출제(전제황권 표방≠권력 분립 부정)
일제 (1)	· 초기 성립 당시 상해 임시정부 출제 : 초대 국무총리 묻는 문제
현대 (1)	· 1946년 좌우합작운동 : 단독정부 운동(분리운동; 분단세력)과 좌우합작운동(통합운동; 통일세력)과의 관계, 1946년의 정세 이해

4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텅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였지만,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별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상주에서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140)

- ①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 ②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이 만들어졌다.
- ③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塔碑)가 유행하였다.
- ④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표현한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 ⑤ 정진과 사색하는 모습의 미륵반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42. 다음 글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년에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니 우둔한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광종(光宗)이 항상 공검절약(恭儉節約)을 생각하고 정사를 처음같이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그 녹과 수명이 길지 못하여 겨우 향년 50에 그쳤겠습니까?

- ①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였다.
- ② 독자적인 연호(年號) 사용을 건의하였다.
- ③ 도읍(都邑)을 옮겨서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 ④ 실천적 기능을 중시하는 신유학을 수용하였다.
- ⑤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안 10여 조를 제시하였다.

43.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건으로 가장 근접한 것은?

1. 국왕은 참위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2.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해 녹봉이 부족하게 됐으니 원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검병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4.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둬드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 할 것.
5. 근래 각 지역의 관리들이 공물 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일삼고 사취하기도 하니

공물 진상을 금할 것. …(하략)…

- ① 12목을 설치하였다.
- ② 동명왕편이 지어졌다.
- ③ 전국을 5도와 양계로 구획하였다.
- ④ 사십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향·부곡·소를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꾸었다.

44. 다음 중에서 고려 초기에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책들을 모두 고르면?

가. 상수리 제도
라. 노비안검법

나. 사심관 제도
마. 기인 제도

다. 경재소 설치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⑤ 가, 나, 다, 라

45. 고려의 토지 분급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여 세습을 허용하였다.
- ② 외역전은 관직을 얻지 못한 하급 관리 자제에게 지급하였다.
- ③ 구분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였다.
- ④ 개정 전시과는 관직의 고하와 인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 ⑤ 내장전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였다.

46. 선사시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 시대에는 뿔적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찍개, 주먹도끼 등과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르개, 밀개, 찌르개 등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돌을 갈아 다양한 모양의 간석기를 만들고, 조리나 식량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었다.
- ③ 신석기인들부터는 도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 ④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는 등 농경이 더욱 발달하였다. 농경의 발달에 따라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사유재산 개념이 발생하여 빈부의 차가 생기고 계급이 분화되었다.
- ⑤ 청동 무기의 보급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계급 분화가 뚜렷해지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47. 고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②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 지방까지 발전하였다.
- ③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말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 ④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갔다.
- ⑤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에 불안을 느낀 한 문제는 대규모의 침략을 감행하였다.

48.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한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 ② 함경도 및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위치하여 부여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 ③ 고구려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 자리 잡고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한의 군현을 공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④ 남부 지방에 있던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들을 합쳐 삼한이라 한다.
- ⑤ 변한은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였으며, 철을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49. 고구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수림왕은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고,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강화하였다.
- ② 광개토왕 때에는 후연, 거란 등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였다.
- ③ 광개토왕은 신라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④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의 영토는 남한강 유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5세기말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과 요동을 포함한 만주땅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되었다.

50. 영조와 정조시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조가 시행한 탕평책은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 ② 영조는 『속대전』,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 ③ 정조는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립하였다.

- ⑤ 정조는 문물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51. 흥선대원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 ②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③ 양반들의 근거지인 향교를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였다.
- ④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 ⑤ 상민들만 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52. 대한제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관파천 이후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던 갑오개혁의 제도 개혁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 ②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1897년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
- ③ 광무개혁은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황제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 ④ 1899년 제정된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만세불변의 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였다.
- ⑤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일부 지역에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53. 밑줄 친 이 책은 무엇인가?

이 책은 세조 때에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서거정 등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 ① 동국통감 ② 동국사략 ③ 동사강목
④ 해동역사 ⑤ 고려사절요

54.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 ②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김구였다.
- ③ 본국과의 연락을 위해 연통제를 실시했다.
- ④ 사료편찬부에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간행하였다.
- ⑤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55.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처리할 것

(《원유철의 역사일지》, p857)

- ①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 ③ 김구, 김규식 등이 주도하여 조직하였다.
- ④ 미 군정의 반대와 탄압 속에서 활동하였다.
-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56.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속활자는 한 번 만들면 여러 종류의 책을 쉽게 찍을 수 있었다.
- ② 고종 21년(1234)에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 ③ 프랑스에 있는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용두사에서 간행했다.
- ④ 공양왕은 서적원을 설치하여 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맡게 했다.
- ⑤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시기가 앞선다.

57. 고려의 대외 문물교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고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을 한 나라는 거란이었다.
- ② 고려의 북진정책으로 인해 여진과의 교류는 없었다.
- ③ 대식국인으로 불린 아라비아 상인들은 주로 요를 거쳐 고려와 교역하였다.
- ④ 고려는 송으로부터 비단, 약재, 책, 약기 등을 수입하였다.
- ⑤ 대외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청해진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58. 조선 전기 왕의 정책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 때에는 정도전 등 공신들의 주도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가 갖추어졌다.
- ② 태종은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 ③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 ④ 세조는 즉위 후 단종 이후 재상에게 넘어간 정치 실권을 되찾기 위해 다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⑤ 성종은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59. 조선 전기 경제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은 유교적 민본 정치의 핵심이 되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농본주의 정책을 펼쳤다.
- ②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상공업 활동을 권장하여 사회발전을 꾀하였다.
- ③ 조선초에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수취 체제를 정비하여 양인으로부터 전세와 공납을

징수하고 역을 징발하였다.

- ④ 세종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전조(田租)를 토지의 비옥도나 풍흉에 따라 차등 징수하였다.
- ⑤ 관리는 수조권을 가진 과전을 지급받았는데, 관리가 죽으면 반납해야 했다.

60. 조선의 성리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선에 들어온 성리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 ② 서원은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정몽주를 기리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 ③ 이이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 ④ 이황은 이이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녔다.
- ⑤ 16세기 중반부터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41번 정답. ③ **[시대사 문제]** 신라 하대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다(사료는 진성여왕대 민란관련 사료). 신라 하대에는 조형미술이 쇠퇴하나, 오히려 승려들의 사리탑인 승탑과 그 승려들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는 많이 만들어졌다(유행하였다). 조사(祖師)들의 가르침을 중시하게 된 선종(禪宗: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의 영향 덕분이다.(pp184,185) // ① 상대(마립간시기). 돌무지덧널무덤은 5~6c 마립간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라의 무덤이다.(p193) ② 중대(석가탑 건립시기-경덕왕)(p184) ④ 중대(8c 경덕왕)(p183) ⑤ 상대(6c 후반)(p185)

42번 정답. ① **[고려 인물사-최승로]** 제시된 사료는 최승로의 <5조정적평>이다. 최승로는 <5조정적평>과 같이 올린 <시무28조>에서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였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213) // ② 성종은 제후국의 위치에 맞는 정치체제를 지향하였다. ③ 인종대 묘청같은 이가 천도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신유학'은 원간섭기 새로이 유입된 성리학을 말한다. ⑤ 최치원 <시무 10조>

43번 정답. ② **[시대사 문제]** 무신집권기의 일을 묻고 있다. 제시된 사료는 최충헌의 <봉사 10조> 내용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288) 3번의 '농장' 내용을 통해 적어도 고려후기의 일임을 알 수 있다. // ① 성종(p213) ③ 예종(인종설/현종설 有)(p234) ④ 태조(p205) ⑤ 조선 초(p377)

44번 정답. ④ **[사실상 시대사 문제]**(《원유철의 역사일지》, pp205,211) // 가. 상수리 제도(신라)(p144). 다. 경재소 설치(사족들의 기구로 실상 조선의 제도)(p381)

45번 정답. ① **[고려 토지제도]** 공음전은 왕족과 공신자제 혹은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습이 허용된 토지였다. 즉 '음택'의 혜택을 주는 토지였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261) // ② 한인전이다. 외역전은 지방(외역)에 있는 향리들에게 지급한 토지(향리전)이다.(pp263,264) ③ 내장전이다. 구분전은 과전을 분급받은 관료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이다.(pp255,258) ④ 시정전시과의 특징이다. 전시과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관직수행을 대가로 하는[관품에 따른] 토지분급이 이뤄졌지만, 시정전시과 단계에서는 여전히 인품이 고려되어 한계가 남아 있었다.(p260) ⑤ 공해전이 관청[廨: 관청 해]에 지급한 토지이다.(p261)

46번 정답. ③ **[선사시대 이론문제]** 불·언·도의 사용(불, 언어, 도구의 사용 + 매장풍습)은 구석기인들의 보편적인 발달 내용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4)

47번 정답. ④ **[고조선]** 고조선 논의의 최근의 중심은 고조선이 강한 국가였다는 것이다.(부자상속, 관료체계 존재, 정복국가로서의 특징(중국의 연, 한나라 등과 대등 내지는 경합) 등이 증거로 제시된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36) // 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없다. ② 요령을 중심으로 성장해 한반도까지 영향력이 미쳤다. 이후 한반도 평양(대동강 유역) 지역으로 세력을 이동했다. ③ 중국 전국시대 이미 왕을 칭했다. 왕을 칭하고 전국시대 7웅 중의 하나인 연나라와 대항했다. ⑤ 한 무제의 침공.

48번 정답. ② **[초기국가]** 고구려의 압박으로 성장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구려에 멸망당하였다.("고구려는 따로 대인을 두어 통치"-옥저)(《원유철의 역사일지》, p48)

49번 정답. ② **[고대국가-고구려]** 평양천도와 한강점령은 장수왕대의 일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73](#))

50번 정답. ⑤ **[조선후기-영정조 왕대사]**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전기 성종대 편찬되었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359](#))

51번 정답. ③ **[개항기-대원군 집정기]** 서원이다. 서원을 47개소 남기고 철폐하였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568](#))

52번 정답. ④ **[개항기-대한제국]** <대한국국제>는 '전제황권'을 명시했다. 권력의 분점을 표현하는 의회, 입헌군주제, 공화정(민주주의), 3권분립, 기본권[민권] 등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형태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670](#))

53번 정답. ① **[조선 문화사-편찬사업(역사서)]** 《동국통감》은 성종대 통사체계가 마련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통사책이다. 본디 세조가 국왕이 중심이 되는 역사서(통사)를 편찬하고자 시도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지연되다 성종대 와서야 편찬된 것이다. 동국통감은 지금 말로 하면 한국(동국)통사(통감)이라는 뜻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539](#))

54번 정답. ② **[일제시대-임시정부 수립]** 통합전(1919.4)에는 이승만이, 통합 후(1919.9)에는 이동휘(연해주 세력, 한인사회당계: 상해와 노령의 통합(좌우통합의 성격도 가짐) ※ cf. 대한국민의회파는 이탈함)가 국무총리가 되었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795](#))

55번 정답. ② **[현대-1946년 좌우합작운동]** 제시된 사료는 좌우합작운동 세력(중도파: 여운형, 김규식)이 제시한 <좌우합작 7원칙>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p855,858](#)) // ① 7원칙이 늦게 발표되면서(1946.10) 각각 5원칙, 8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던 좌파, 우파 세력들은 이탈하였다. 극좌의 조공(박헌영)과 극우쪽의 이승만, 한민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7원칙>은 무력하게 되었다. 사실상 좌우합작운동의 실효성이 소멸된 것이다. ② 단독정부 수립운동은 이승만과 한민당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였다. ③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주도 ④ 이 당시 미군정은 중간파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오히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반대하였다. 1947년 이후에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지지 내지는 전개해 나간다(트루먼 독트린: 미소협조책 포기). ⑤ 7원칙에서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56번 정답. ③ **[고려 문화사-인쇄술 발달]**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용두사는 용두사지철당간이 남아 있어 유명한 곳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344](#))

57번 정답. ④ **[고려 대외관계]** ① 송나라([《원유철의 역사일지》, p272](#)) ② 고려 초부터 여진은 고려를 상국으로 삼아 음식과 물자 등을 받아가고, 때로 고려의 관직을 제수받기도 했다(이에 따라 전시과를 분급받기도 함). 때로는 고려초부터 침략해 오기도 했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250](#)) ③ 송 ⑤ 벽란도. 청해진은 신라 하대 장보고에 의해 세워진 군진이자 서남해안

무역기지이다. 장보고 난 때 장보고가 죽으면서 폐쇄되었다.

58번 정답. ③ [조선전기 왕대사] 의정부 서사제는 왕의 권한을 의정부 재상들과 분점하는 것이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p349,351,356,358](#))

59번 정답. ② [조선-경제사] 농본주의 정책과 역상정책을 폈다. 상업은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었다. 이유는 상업이 발달하면 농업 피해를진다는 것 때문이었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416](#))

60번 정답. ⑤ [조선 문화사-사상사] ① 동학 ② 안향 ③이황 ④ 이이 ⑤ 16c인 이황과 이이대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고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원도 이때 설립되었다.([《원유철의 역사일지》, p511-3](#))